

기록없이 양계경영하던 시대는 지났다



임 옥 빈

풍천농장 대표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
고려대 경영대학원 졸

하 나의 기업이 탄생하여 계속 기업으로서 발전 성장하기란 쉽지 않다. 흔히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Art is long, Life is short)」고 하듯이 기업도 창업되어 유수한 외국의 기업같이 수세기를 걸쳐 발전,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예술과 같이 영구불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양계인이 겪고 있는 불황의 늪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를 조금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축산물의 수입이 일부 개방되고 있으며 미국의 곡물 생산이 순조롭지 않아 세계곡물가격이 인상되고 국내사료가격은 이에 영향받아 kg당 200원선까지 오르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우리 양계업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실감하겠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계란판매 수입에다 연연히 증가하고 있는 사료비, 인건비, 약품비 등 생산원가 요소 상승

의 이중고(二重苦)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지 걱정이 태산같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생업인 양계사업을 그만두고 갑자기 전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채란계사업이야말로 누구의 지원도 없이 절해고도의 고아로서 스스로 성장, 발전하여온 산업이 아닌가. 앞으로 캐나다나 호주와 같이 국가에서 양계산물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양계인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하는 문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 양계인 모두의 노력여하에 달렸다고 본다.

저난가 고사료가격이 예상되는 시기에 우리 양계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를 채란계업자 입장에서 평소 생각하는 바를 정리하여 봄으로써 필자 자신도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고 독자 여러분도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1. 채란계 농장의 현황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도 상반기에 계란 개당 평균 49원을 받던 것이 점점 계란가격이 하락하여 금년 상반기에 받은 가격은 35원으로 '85년도에 비해 28%, '86년도에 비해 16%, '87년도에 비해 6%씩 각각 하락하였다. 생산원가를 고려할 때 계란개당 최저 40원선은 유지되어야 계속 기업으로서 유지발전이 있겠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계장에 부채만이 증가할 뿐이지 자동화를 위한 시설투자라든지, 종업원을 위한 처우개선, 복지문제 등은 해결하기 어려워 종업원의 이직문제, 신규채용문제 등이 악순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농장계란 개당수취가격의 변화

연 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비 고
1985	48.88원	44.44원	46.40원	
1986	41.74원	42.74원	42.43원	
1987	37.38원	35.21원	36.26원	
1988	35.03원			

금년 상반기 계란가격은 85년 상반기 가격대비 28% (13.85원) 하락

금년 상반기 계란가격은 86년 상반기 가격대비 16.08% (6.71원) 하락

금년 상반기 계란가격은 87년 상반기 가격대비 6.3% (2.35원) 하락

※연간 총 생산된 계란평균가격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다행히 사료가격도 하락하여 양계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금년내에 사료가격이 대폭 인상되어 kg당 200원선까지 되지 않겠나하고 전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넘겨야 하는가를 연구하여야겠다.

표 2. 산란초기 사료 농장도 가격의 변화(kg당)

연 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비 고
1985	188.38원	171.84원	179.22원	
1986	163.86원	156.80원	160.36원	
1987	147.61원	145.71원	146.37원	
1988	149.56원			

금년 상반기 계란가격은 85년 상반기 가격대비 20.6% (38.82원) 하락

금년 상반기 계란가격은 86년 상반기 가격대비 8.72% (14.30원) 하락

금년 상반기 계란가격은 87년 상반기 가격대비 1.35% (2원) 하락

2. 앞으로 해야 할 일

(1) 앞서가는 양계인이 되어야 한다

양계업이야말로 완전경쟁(Complete Competition)이다. 완전경쟁하에서는 경쟁에 뒤지는 양계인은 탈락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가 아니겠는가. 양계업도 하나의 기업이다. 기업이기에 때문에 기업경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기업의 목적인 이윤추구, 이윤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나,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도산하는 것은 최악이다. 우리 양계기업인 스스로가 이런 시기에 자기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농

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스스로가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시정하여 타농장보다 앞서가는 모범적인 농장이 되는데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다. 고통없이 얻는게 없다.

(2) 기업경영의 기법을 연구활용한다

경영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되는 제반기록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아무런 기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양계경영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모든 기록을 분류, 집계, 비교, 분석, 평가해야만 잘못된 부분의 원인 및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우리 양계경영인도 타산업에 뒤지지 않는 경영능력을 키워야 한다. 필자는 양계에 관한 세미나 교육이 있으면 거의 전부 듣는다. 교육은 반복해서 듣는데 그 효과도 크다.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한다.

(3) 사람의 중요성 인식

요사이 사람구하기가 힘들다. 타업종에 비해 근무조건이 불리하고 장애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농장에는 1년이 넘은 종업원이 한사람도 없어'한다면 이 농장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있는 관리인들이 안정이 되어야 사양관리도 제대로 하고 생산성도 올리게 된다.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앞으로 농장의 인사관리(人事管理)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

(4) 사료비 절감방안

계란계 사업은 사료비 비중이 크므로 사료비를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절감할 수 있나 없나에 달려 있다.

① 동절기에 계사벽면을 이중으로 비닐을 꼭 치자. 비닐값이 얼마든간에 공간을 두고 이중으로 비닐을 치면 계사내 온도를 3~4℃정도 높일 수 있다. 1℃온도 차이에 1g의 사료를 더 소비한다니 얼마나 손실이 큰가.

② 니플급수기를 꼭 설치하자.

필자 경험으로는 니플 급수기가 양계장에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준다. 차입을 해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한다.

③ 아직도 평사 육추를 한다면 생각해 볼 문제다. 도대체 이윤추구를 위하여 양계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새로운 사양관리 기법을 빨리 빨리 흡수, 소화해야 한다.

④ 닭을 크게 키우는 데서 오는 사료 낭비가 많다. 체구가 크면 유지사료가 많이 든다. 현재와 같은 저난가, 고가사료시기에는 필자의 경험으로 백색계가 갈색계 보다 수익성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⑤ 쥐잡기, 휘드 빈(Feed Bin)설치 등 마이너스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자.

⑥ 구입사료비 절감

품질은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농장도착 가격을 기준으로 농장별 사료가격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다. 이 가격은 1988년 8월 10일을 전후하여 의정부, 동두천, 양주지역에서 조사한 kg당 가격이다.

표 3. 농장도착 산란초기 사료가격

A 농장	152(원금)
B "	164(")
C "	160.82(")
D "	166.32(")
E "	175.56(30일 외상)
F "	157.74(원금)
G "	169.60(")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료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는 농장과 고가구입농장과의 가격차이는 kg당 23.56원 (15.5%)에 이른다. 이는 연간 1,500Ton의 사료를 소비하는 농장을 예로 한다면 3천5백만원의 사료비 지출의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우리 양계인은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내가 구입, 사용하고 있는 사료가격은 적절한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대응하여야겠다.

(5)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례

① 지붕의 단열수치를 높이자

한국양계연구소 주최 양계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수강 때 들었다. 어느 수강자가 하는 말이 "금년 여름에 스테이트로만 되어 있는 지붕을 R밸류 10으로 높이는 공사를 했습니다"한다.

필자의 농장은 지붕에 스테이트, 보온덮개, 비닐, 유리섬유, 타포린을 깔았다.

금년 여름더위가 유난해서 농장마다 피해가 컸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어렵지만 지붕의 단열수치를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야겠다. 필요성은 역설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하절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함이고 동

절기에 사료절감을 위하여 농장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② 하절기 선풍기 증설

필자의 농장 4호사를 예로 한다. 계사길이는 200자, 폭은 20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대형선풍기를 계사의 서쪽으로부터 계사길이의 1/3의 지점에 설치한 경우 실내온도를 측정한 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계사라고 해도 위치에 따라 3~4℃정도의 온도차이가 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올해와 같이 폭발적인 더위가 계속되어 폐사는 물론 산란저하 등 심각한 상황일 때 대형선풍기를 증설하여 계사온도를 3~4℃ 낮출 수 있다면 생산성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표 4. 계사온도 조사표

일자	온도측정위치			온도차	비 고
	서	중앙	동		
8.1	34℃	37℃	36℃	3℃	하루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3시 조사
2	34	36	37	3	
3	33	35	37	4	
4	32	36	35	4	
5	33	35	36	3	
6	33	37	35	4	
7	35	37	36	2	

③ 계근대 설치 권장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료를 정확하게 계근하여 투여할 일이다. 계근별로 정확한 사료급여량을 평소에 관리하지 못하고는 계근별 성과분석은 요원하다.

필자의 농장에서는 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저울 2Ton짜리 중고를 매입하여 계근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색계를 사양하는 농장에서 계근대 없이 적당주의로 사료를 급여한다면 걸으로는 좋을런지 몰라도 속으로는 풀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앞으로의 양계는 합리화를 추구하여 남보다 앞서가는 양계를 하도록 모든 양계인이 노력하여야 한다. 타농장보다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열과 성의를 기울여야만 양계도 계속 기업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고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반성도 없이 구태의연하게 경영을 하는 양계장은 자연의 법칙대로 보이지 않는손(Invisible Hand)에 의하여 도태된다.